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대선 캠페인서 반이민 어젠다 밀어붙이는 트럼프
- ◇ (초점)-코로나 19·경제타격 우려에도 오르는 금리..'트리플 약세' 테마 아닌 심리
- ◇ (초점)-FX 스왑 증가 '조작' 표현 등장에 시장 '지나쳐'..당국 '살펴 봐야'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미국 상원 의원이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및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 해리스 후보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팀을 이뤄 선거에 도전한다. (로이터/케빈 라마르크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8월2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186.3	-0.1%	-2.5%	-3.5%	유로	1.1795	-0.4%	5.2%	-2.3%
100엔 대비	1,126.3	-1.2%	-5.7%	-4.4%	엔	105.78	0.8%	2.7%	0.9%
유로 대비	1,405.6	0.0%	-8.0%	-1.3%	위안	6.9160	0.4%	0.7%	-1.3%
위안 대비	172.19	-0.8%	-3.8%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7,930.33	0.0%	-2.1%	22.3%
코스피	2,304.59	-4.3%	4.9%	7.7%	나스닥	11,311.80	2.7%	26.1%	35.2%
코스닥	796.01	-4.7%	18.8%	-0.9%	S&P500	3,397.16	0.7%	5.1%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63.24	0.1%	1.9%	15.8%
국고채 3Y	0.854%	2.6bp	-50.6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126%	3.0bp	-35.4bp	-40.4bp	미국채 2Y	0.147%	0.0bp	-141.4bp	-93.7bp
국고채10Y	1.410%	1.4bp	-27.3bp	-26.5bp	미국채 10Y	0.636%	-7.3bp	-127.4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2.34	0.8%	-30.7%	34.5%	한국 5Y	21.3bp	-0.3bp	0.2bp	-17.0bp
금(현물)	1,939.40	-0.2%	27.8%	18.3%	일본 5Y	16.1bp	0.2bp	-1.6bp	-4.0bp
TR상품지수	2,386.79	-0.5%	-4.0%	4.8%	중국 5Y	37.3bp	-2.3bp	6.6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8월 24일(월)>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10:00)
- 한은 총재, 국회 기재위 출석(10:00)
- 금융위 부위원장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10:30)
- 한은, 7월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한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12:00)

<25일(화)>

- 한은, 8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09:00)
-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10:00)
-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10:00)

<26일(수)>

- 한은,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금감원, 7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기재부, 경제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08:30)
-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 금감원,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12:00),
- 한은,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통계청, 6월 인구동향 · 7월 국내인구이동(12:00)

<27일(목)>

- 기재부, 경제 부총리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8:00), 1차관 브리핑(09:30)
- 금융위원장 증권업계 간담회(10:00)
- 한은, 금통위 회의 및 통화정책방향 발표
- 한은, 2/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12:00)
- 한은, 경제전망(13:30)
- 기재부, 9월 국고채 발행계획(17:00)

<28일(금)>

- 기재부, 경제 부총리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10:00)
- 한은, 7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 기재부,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8월 24일(월)>

- 미국, 7월 전미활동지수 (21:30)

<25일(화)>

- 미국, 7월 건축허가 (21:00)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8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21:30)
- 미국, 6월 연방주택금융청(FHFA) 주택가격(22:00)
- 미국, 6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8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23:00)

<26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7월 내구재주문 (21:30)

<2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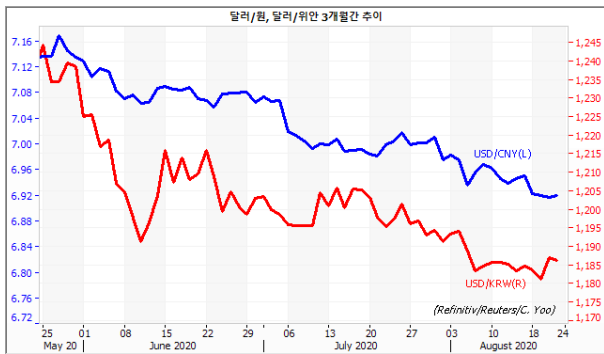
- 중국, 7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7월 총 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17:00)
- 미국, 2분기 기업이익 잠정치 · 2분기 GDP 수정치 · 근원 PCE 물가지수 잠정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심포지엄서 연설 (22:10)
- 미국, 7월 잠정주택판매 (23:00)
- 미국, 8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24:00)

<28일(금)>

- 일본, 8월 도쿄 CPI (08:30)
- 유로존, 8월 기업환경지수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18:00)
- 미국, 7월 개인소득 · 근원 PCE 물가지수 · 도매재고 · 소매재고 (21:30)
- 미국, 8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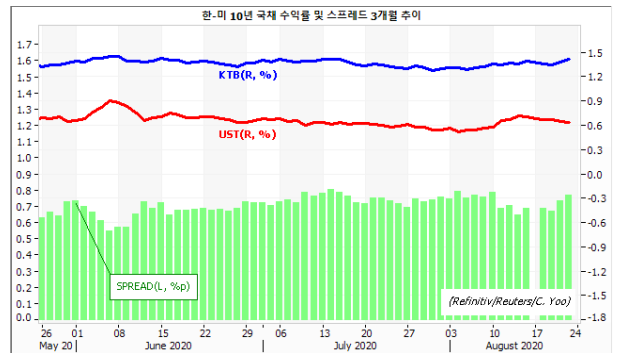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원화는 글로벌 달러 행보를 살피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 19 감염자 재급증에 따른 리스크 오프 심리, 한국은행 성장률 조정폭 등에 영향을 받으며 약세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되는 주간 달러/원 거래범위는 1180-1200 원이다.
- 달러지수가 2년 만의 최저치로 내려앉은 뒤 지난 주말 반등했지만, 약 달러에 대한 기대는 유효하다. 하지만 이같은 대외 여건에 반응하는 원화 속도는 더뎠다.
-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속해서 세 자릿수를 기록 중인 가운데 22일 0시 기준으로는 400명에 육박하는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 이런 가운데 원화는 이번 주 있을 국내외 통화정책 수장들의 발언 수위에 따라 더 흔들릴 수도 있다.
- 27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은 매우 작다. 하지만 시장 관심은 지난 5월 -0.2%로 제시한 한은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조정에 쏠려 있다.
- 또한 27일 오후 10시 10분(한국시간)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다.
-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 따라 글로벌 달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원화도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이에 더해 국내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보험성 달러 매수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수급은 달러/원 하단을 더욱 단단하게 막아설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주는 원화 약세 변동성 확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굵직굵직한 이벤트와 함께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지난주 중반부터 수도권 집단감염 소식과 함께 코로나 19가 전국적 대유행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지만,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랐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됐다.
-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벌여놓은 수익을 방어하려는 보수적인 포지션 운용전략이 늘고 있는 것도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 이번 주는 그야말로 지뢰밭이다.
- 24일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과 한은의 스탠스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수정 경제 전망 발표와 함께 묶어 볼 필요가 있다.
- 코로나 19 확산세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중요하다.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거론할 경우 주식과 외환, 채권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금융계, 학계 인사들이 통화정책을 논의하는 잭슨홀 회의가 28~29일 열린다. 연준의 장기적 통화정책과 수단 변화 등과 관련한 힌트를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 4차 추경과 관련한 뉴스 헤드라인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만큼 경계심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 한 주다. 긴장의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점)-대선 캠페인서 반이민 어젠다 밀어붙이는 트럼프

워싱턴/뉴욕 (로이터) - 미국 유권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과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더 우려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에서 반이민 어젠다를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민에 대한 그의 강경한 입장 덕이 컸다. 그리고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코로나 19 확산 대응 부담과 인종차별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초점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및 일부 영주권 신청자 입국 금지 등 미국의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에 제한조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어젠다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민주당 후보자인 조 바이든과 대조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대한 이민 정책이 향후 선거에서 "거대한 정치적 취약점"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11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조기 투표 격전지에서 시작된 새로운 TV 광고에서 이민자 수백 명의 미국 내 불법 거주 합법화를 지지하는 조 바이든이 미국 노동자들을 더 많은 경쟁에 내몰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략은 코로나 19 관련 생계 문제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것이라 여기는 일부 공화당 전략가들을 당황하게 했다.

알렉스 코넬트 공화당 전략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자들을 격려하고 대화 주제를 코로나 19 위기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기 위해 이민 정책을 이용하게 되면 부동산들이 멀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요청에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가 실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판데믹 이전에 3일에 한 번꼴로 이민 정책을 바꾸고 있었다.

판데믹 기간에는 이 횟수가 이틀에 약 한 번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라 피어스 이민정책연구소 정책 애널리스트는 "코로나 19 관련 공중 보건 및 경제 위기에 이민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민에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 반이민 정책 홍보

백악관과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망명자 출입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 및 H-1B 비자로 입국하는 숙련된 외국인들로부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 등 더 많은 조치가 대선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유권자들이 동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부동산 유권자들은 판데믹 이전에는 이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 동안 부동산 약 53%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일부 합법적 이민을 중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부동산 절반 가까이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민자 추방 정책을 지지하고 있던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직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산은 유권자 6명 중 1명에 달한다.

◆ 메시지는 그대로

지난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해 난민 입국과 망명 접근을 크게 제한하는 것을 의제의 한 축으로 삼았었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은 이번 선거에서 역시 그의 주요 주제이자 정책 우선순위 중 하나이다.

이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 분야 중 하나다. 취약한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복잡하며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워싱턴 소재의 정치마케팅업체인 볼리 펄핏 인터랙티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6월 트럼프 선거 캠페인은 페이스북 광고에서 다른 어떤 정책 분야보다 이민을 주제로 한 광고에 더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 중 1억 6000만 명 이상이 투표 연령대에 속한다.

바이든은 자신이 당선될 경우 취임 후 100일 동안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추방을 모두 중단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중죄인들만 추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선거 캠페인은 이러한 바이든의 계획을 부각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7월 백악관 로즈 가든 기자회견에서 이를 "강간, 살인, 그리고 다른 많은 이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바이든 선거 캠페인 대변인은 추방 유예는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며 불법적인 국경 횡단을 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미국은 달라졌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초 미국 유권자들은 이민을 주요 안건으로 여겼었다. 하지만 2019년 하반기와 2020년에 들어서면서 유권자가 다양해짐에 따라 상황은 달라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을 주요 사안으로 여겼던 공화당원들조차 3월 코로나 19가 미국을 강타한 이후 초점을 바꿨다. 이들 역시 다른 유권자들 처럼 경제 및 보건을 최우선 관심사로 꼽고 있다.

휘트 아이리스 공화당 여론조사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유권자를 모으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바이든을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그의 메시지는 2016년 당시 메시지와 거의 똑같다"며 "나라가 바뀌었는데, 대통령의 메시지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점)-코로나 19·경제타격 우려에도 오르는 금리..'트리플 약세' 테마 아닌 심리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원화 채권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7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채권 금리도 오르다 보니 '트리플 약세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선 예상보다 덜 완화적이었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내용과 외국인의 10년 국채 선물 순매도가 이날 원화 채권의 조정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채권 투자에 따른 기대수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딜러들의 보수적 포지션 운용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 19 확산과 주가 급락에도 오르는 금리

20일 오후 2시 39분 현재 3년 국채 선물 9월물은 전날보다 2틱 하락한 112.22, 10년 선물은 23틱 내린 134.02에 거래되고 있다.

채권 약세가 두드러지는 건 코로나 19 확산과 경기 둔화 우려로 이날 코스피지수가 3% 이상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경기 부진 전망이 늘면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데 이날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물론 금리 상승 재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초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미국 연준이 9월경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 등 다양한 국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7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정책 결정자가 수익률 통제나 목표치 설정을 현재 가능한 정책 옵션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채권시장에 실망 매물이 나온 이유다.

여기에 외국인이 10년 국채 선물을 3천계약 이상 순매도하며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

물론 현재 상황을 지난 3월과 같은 트리플 약세 국면으로 보는 딜러는 없다.

당시엔 코로나 19 확산으로 글로벌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시 폭락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유동성 확보가 급한 기관부터 '묻지 마' 매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원화 자산 전반에 대한 패닉 셀링이 나타나며 국내 주식, 채권, 외환시장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이후 달러 경색 상황은 완연하게 해소됐고 국내 원화 자금 역시 풍부한 상황이라 3월과 비교하기에 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머니 지키기' 심리..리스크 관리 집중하는 시장

최근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경제 펀더멘털이나 수급 요인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펀더멘털은 채권 롱 재료로 분류될 수 있다. 늘어나는 국고채 발행 물량도 부담이긴 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상반기보다 물량이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까지 강세장이 펼쳐졌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시장의 가장 강력한 재료는 심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에서 상반기에 상당한 수익을 낸 기관들이 매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이 약세 재료에 더 민감해졌다는 것이다.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백신 개발과 같은 테일 리스크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A 은행 채권 딜러는 "수급이 먼저냐, 경기가 먼저냐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경기가 먼저"라며 "올해 시장이 꾸역꾸역 물량을 받아낸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수급이 금리를 크게 끌어올릴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코로나 19 치료제가 나온다는가 하면서 시장의 기대 지형이 달라지는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갑작스럽게 회수하지는 않고 계속 끌고 가면서 코로나 19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감이 커지는 상황,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오히려 살아나는 그 상황이 연말이나 내년 초 언젠가 막힐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B 외은 지정 트레이딩헤드는 "백신이 언제 나올지, 정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심리적인 안정감은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가능성을 반영한다면 연말로 갈수록 금리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봐야 하고 지금 시장은 이런 부분을 미리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성적이 좋은 국내 기관들이 지금 금리 레벨에 미친 듯이 사서 끝을 보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결국 딜러들의 심리는 레벨이 정말 좋지 않으면 사지 않겠다는 것이고 현재의 채권 약세는 결국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정도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C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국내 금융시장이 그동안 많이 발전해 빈틈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10년 전만 해도 국채선물 저평가 30 톱에 마구 매도를 내놓는 이상한 짓을 했는데 지금은 모두가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풀 베팅을 해도 기대수익이 적기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유인이 없다"며 "코로나 19 든 주식이든 시장 움직임에 영합해 급히 헤지해도, 급히 사도 자기만 손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롱 포지션을 들고 버티는 정도의 전략이 맞을 듯하다"고 말했다.

(초점)-FX 스왑 증가 '조작' 표현 등장에 시장 '지나쳐'..당국 '살펴 봐야'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FX 스왑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최근 장 막판 일부 은행들이 직전 가격대보다 낮은 수준에 거래를 체결해 종가가 낮게 정해지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를 두고 '조작'이라는 표현이 일부 국내 언론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FX 스왑 증가 결정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전부터 지적돼 왔고, 지금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돼 있다.

그렇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A 은행 시장 참가자는 "현재 증가 부근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상대 포지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이를 조작이라고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일단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 시장 참가자들 "'조작' 표현은 과도"

FX 스왑 시장 증가 결정 과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시장 참가자들도 이미 인정하는 부분이다.

장 마감 직전에 일부 시장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다소 의도성을 띤 것처럼 보이는 거래가 몰리면서 가격이 움직여 결정되는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이에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에서는 시장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적정 거래량이 동반된 거래라야 증가로 인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도 증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B 은행 시장 참가자는 "한창 심할 때는 더 많았지만, 일부 외은들이 부채 스왑 관련 물량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추려는 경향도 있는 듯하고, 이럴 때 서울외국환중개 스크린 가격을 눌러 버릴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 참가자는 "플로우에 따른 거래일 수도 있는 데다 증가를 낮추려는 주체도, 높이려는 주체도 다 있다"라고 말해 과도한 해석은 경계했다.

기관마다 거래 운용 측면에서 장 막판에 에셋 스왑을 한꺼번에 소화시키는 곳도 있고,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FX 스왑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당국이 장 마감 부근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한다.

C 은행 시장 참가자는 "시장 참가자들이 비드-오퍼를 때리면서 거래하는 것을 두고 의도적, 또는 증가 조작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나간 얘기"라고 말했다.

▲ 외환 당국 "상황 봐야"..시장 "논의 필요할 수도"

외환 당국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자세다.

한 당국자는 "이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시장 참가자들 역시 계속 논란이 돼 왔던 이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입을 모으고 있다.

D 은행 시장 참가자는 "FX 스왑 시장은 스팟처럼 실시간 호가를 볼 수 없다 보니 괴리된 가격에 대한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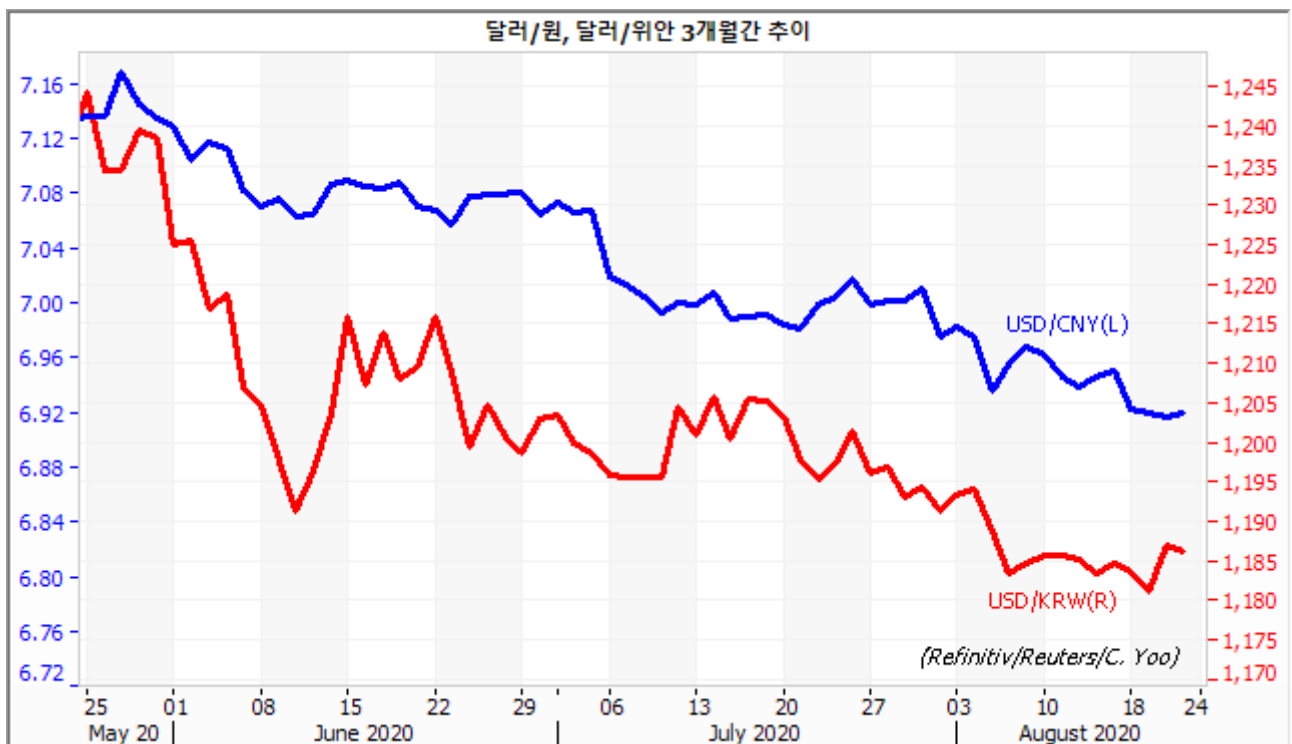
그러면서 "FX 스왑 증가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 중개사를 통해 미드 가격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시간 비드-오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의 A 은행 시장 참가자는 "이번 사안이 과도한 해석을 불러일으켜 시장 신뢰 전반에 문제가 생길지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 "만약 개선돼야 할 사안이 있다면 외시협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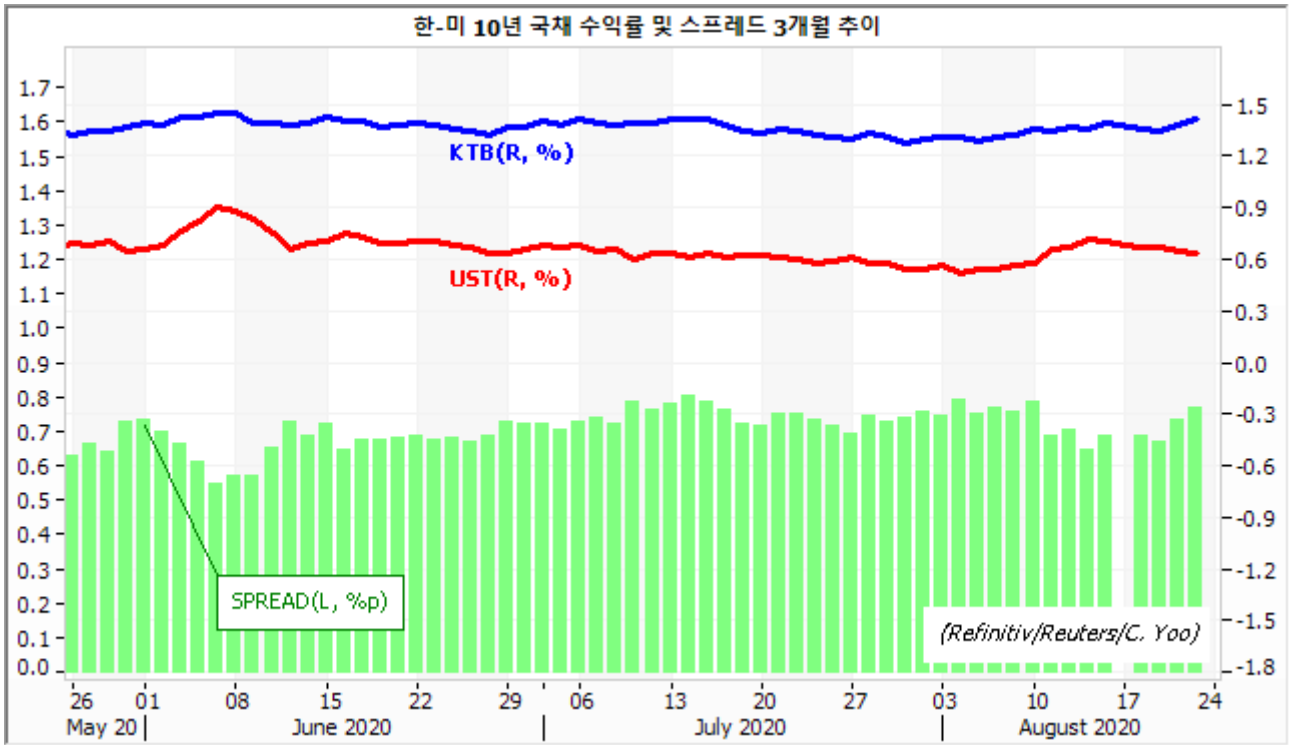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